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 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민정* 조공호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도, 무망감, 정신건강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취업난에 시달리는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 지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4학년과 4년제 대학 졸업생 7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으로 수집되었으며, 이 중 429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취업 및 진로와 관련해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이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진로태도성숙 수준은 낮은 집단이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가장 높았다 또한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가장 컸다. 이것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을 각각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두 가지 변인이 합쳐졌을 때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이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상호작용은 진로태도 미성숙집단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진로태도 성숙집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턴이나 비정규직 같은 단기적인 일자리 수를 늘리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실업 대책과 함께 적극적인 진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 취업준비생, 청년실업, 경제적 스트레스, 진로태도성숙도, 무망감, 정신건강, 심리적 부적응

매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하는 학제별 미취업자 현황(표 1 참조)을 보면 최근 5년간 대학 졸업자 4명 중 1명 이상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청년실업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통계는 대학 졸업생 중 대학원 진학이나 해외 유학을 떠나는 진학자와 군 입대자를 제외한 수치로, 취업이 되지

않아 진학이나 군 입대를 선택한 경우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 통계는 취업 의사는 있으나 노동시장의 상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는 고려하지 않은 과소포착 된 실업률이다(김경모, 2002). 여기에 졸업은 했으나 여전히 미취업 상태에 있는 기

† 교신저자 : 김민정,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졸업, whitekimmj@hanmail.net
이 연구의 결과 처리 과정에 도움을 주신 오경기 교수(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께 감사드립니다.

표 1. 최근 5년간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미취업자 현황 (단위 :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졸업자	267,058	268,833	270,546	277,858	282,670
미취업자	86,333 (32.3%)	77,822 (28.9%)	75,040 (27.7%)	75,842 (27.3%)	74,135 (26.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취업통계연보」

표 2. 최근 5년간 전체 실업률과 15~29세 실업률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3.7	3.7	3.5	3.2	3.2
15~29세	8.3	8.0	7.9	7.2	7.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존의 청년실업자들까지 합치면,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실업자 중 상당수가 청년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통계로 포착된 것일 뿐이며,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 현상들을 보면 청년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와 청년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체감 정도는 통계 자료 이상으로 심각해 보인다.

하지만 청년실업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층의 실직²⁾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중·장년층의 실직은 실직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실직과 사회적·심리적 관계를 규명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비해 청년실업에 대한 연구는 중·장년층의 실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부터 파생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7년 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시작된 급격한 불황이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져, 실직에 따른 다양한 현상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났고, 경제위기 하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 실직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오수성, 2001; 유희정, 황성훈, 홍진표, 김현수, 이철, 한오수, 2000; 이민규, 김완석, 1999; 정기선, 2000). 청년실업의 경우, 최근 들어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연구 편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노연희, 장재윤 2006; 신현균, 장재윤, 2003; 신희천, 장재윤, 이지영 2008; 이지영, 장재윤, 신희천, 2008; 이훈구, 김인경, 박윤창, 2000; 장재윤, 신현균, 김은정, 신희천, 하재룡, 장해미, 2004a; 장재윤,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한지현, 2004b; 장재윤, 장은영, 신희천, 2006).

청년실업으로 인한 고통은 중·장년층들이 실직 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처럼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경자, 1998). 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비추어 보면, 일할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의 장기적인 실업은 인생을 설계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청년실업은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경제적 독립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혼과 자녀를 낳고 키우는 성인으로서의 발달 과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Fryer, 1986). 이러한 청년기의 부정적인 경험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일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갖게 할 수 있으며, 그 반면에 만족스런 일자리는 청년들의 심리적인 건강과 직업 정체감 형성을 돕는 중요한 요인이다(Jackson, Stafford, Banks & Warr, 1983). 직업 만족도에 따라 나는 청년층 취업자와 실업자 집단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만족스러운 직업을 얻은 청년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진 청년들에 비해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훨씬 더 높았다(Winefield, Winefield, Tiggemann & Goldney, 1991). 실업 상태에 있는 스웨덴 청년들을 연구한 것을 보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우울과 불안, 불면증, 알코올과 약물 남용,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등 실업이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xelsson & Ejlertsson,

1) 실업(失業, unemployment)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태.
2) 실직(失職, unemployment) 직업을 잃음. 실업과 실직은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되고 영어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업은 일을 할 의사에, 실직은 직업을 잃는 것에 좀더 의미를 둔 표현임을 감안해, 본 연구에서는 일을 할 의사는 있으나 아직 직업을 얻지 못한 청년층은 실업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직업을 잃은 중·장년층은 실직으로 구분을 해 기술하기로 한다.

2002; Hammarstrom & Janlert, 1997; Hammarstrom, Janlert & Winefield 2002).

20대 청년 476명을 대상으로 취업 성공집단, 구직 부분실패 집단, 구직 완전실패 집단, 구직 미시도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취업에 성공한 집단이 가장 긍정적인 성향을 보인 반면에 구직 완전실패 집단은 생활사건의 변화가 가장 컸고, 정신건강 수준이 가장 나빴으며,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이훈구 외, 2000).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구직 행태의 성차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구직 효능감과 자존감, 정신건강 수준이 낮고 구직 스트레스에 더 취약했다(장재운 외, 2004a; 신현균 외, 2003). 이와 같은 횡단 연구는 취업에 성공한 집단과 실패한 집단을 비교하고, 실업이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과 구직 활동에 있어서의 성차나 개인의 특성을 밝히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저하가 취업 실패로 인한 것인지, 취업 실패라는 결과 이전의 개인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밝히기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횡단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업 기간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를 추적 조사하는 종단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학 4학년들의 취업과 미취업 상태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을 6개월 간격으로 조사한 종단 연구에서는 졸업 후의 3차 조사 시기까지 미취업 상태에 있는 집단의 정신건강 수준이 가장 나빠,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재운 외, 2004b). 그러나 같은 대상을 6개월 후 다시 조사한 연구에서는 여전히 미취업 상태에 있는 집단의 우울 및 불안 수준은 다소 완화되었고, 부적응 수준은 취업의 성공 및 실패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았다(장재운 외, 2006).

이러한 결과는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추론하는데 있어, 두 가지 인과관계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청년실업이 정신건강 수준을 낮춘다는 노출가설과 원래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취업에 실패한다는 선택가설(Winefield, 1997)이 그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의 특성이나 성별, 조사 시점, 취업 여부 등에 따라 노출가설과 선택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노연희 외, 2006; 신희천 외, 2008; 장재운 외, 2004b; 장재운 외, 2006)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드러난 노출가설과 선

택가설의 미미한 차이는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교호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신희천 외, 2008).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스트레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이 세운 진로 계획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진로 장애는 그것이 구조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든, 자신의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든 그 자체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에 틀림없다(London, 1997). 그동안 실업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우리 사회처럼 구조적인 원인으로 부터 비롯된 청년실업의 영향에 대해 설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취업난과 그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준비생들이 받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주목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중·장년층의 실직에 대한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실직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많은 연구에서 실직으로부터 비롯된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오수성, 2001; 유희정 외, 2000; Warr, 1983).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져 만성적인 상태가 되면 실직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마저도 그 효과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며(Kong, Perrucci & Perrucci, 1993), 단기 실직자들은 통제 불가능한 사건에 노출되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장기 실직자들은 노력을 덜 기울이는 양상을 보였다(Baum, Fleming & Reddy, 1986).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실직자와 그 배우자의 관계 만족도와 우울 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Vinokur, Price & Caplan 1996), 양육태도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업의 변화와 우울감이 큰 아버지일수록 애정적 양육태도가 낮았다(김보형, 1999). 아버지의 실직이나 수입 감소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감과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정서적으로 더 민감했다(Lemper, Clark-Lemper & Simons, 1989).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우울이 증가하며, 이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조미영, 1999).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부양 가족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인생을 설계하고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야 할 청년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취업준비생들과 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한 해 평균 대학 등록금이 국·공립대학은 416만 원, 사립대학은 742만 원에 이르고³⁾, 학비로 인한 부담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41.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⁴⁾를 보면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은 심각한 취업난과 함께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인다. 여기에 7%를 넘나드는 높은 학자금 대출 금리와 청년실업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원금을 함께 갚도록 만든 대출금 상환 시기, 취업에 필요한 어학과 각종 자격증을 갖추기 위해 따로 사교육비를 투자해야 하는 현실도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직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에게 이러한 현실은 부모의 경제력이 곧 취업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했던 저소득층에게는 힘겹게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 경쟁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졸업을 한 학기 혹은 1년을 남겨두고 휴학을 하거나, 졸업 요건이 채워졌음에도 취업에 유리한 졸업예정자라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자가 갖고 있던 직무능력이 쇠퇴하거나 뒤떨어져 취업이 힘들어진다는 '지연에 따른 가치감소(temporal discounting)'라는 개념이 있는데(Maxwell, 1989; 송혜령, 2004 p. 12에서 재인용), 위에서 예로 든 현상은 이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이미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현상 또한 교육기간을 그만큼 연장시켜 경제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는 취업준비생들의 대표적인 초기 구직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 구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더 심각해지는 노출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주목하여 취업준비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으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설정하였다.

진로태도성숙도

Super(1963)는 진로발달이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며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발달 과정에 따르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시기에 이미 자신의 흥미와 능력,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 그에 맞는 전공을 결정하고 대학 재학 중에 이를 구체화시켜 직업에 입문해야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쫓겨 자신에게 맞는 진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대학을 선택하고 곧이어 취업 준비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데나 들어가고 보자는 식이나 직업의 안정성만을 고려해 각종 고시로 청년들이 대거 몰리는 안전지향형의 진로 탐색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진로태도성숙도란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확신, 적응, 준비하는 정도(이기학, 1997)를 말한다. 여기서 '태도'란 본질적인 경향성으로, 호-불호, 긍정-부정으로부터 연구 대상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진로발달 과정까지 포괄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독립변인에 따른 중속변인으로서 진로태도성숙도를 연구한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사회적 지지 등은 진로태도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과 내적 통제감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진로태도가 성숙했다(이기학, 1997). 유아 시절에 형성된 애착의 질이 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에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입

3) 『연합뉴스』 2009년 5월 12일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학년도 대학 등록금 분석 결과」.

4) 『연합뉴스』 2009년 3월 18일자,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2009년 3월 대학생 733명, 휴학생 246명, 총 9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진, 2003; 최옥현, 2006),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제공 받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태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진, 200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로 측정된 정신건강 수준과 진로태도성숙도의 관계에서는 정신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 변인 중 하나인 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태, 2005).

그 반면에, 불안이 높고 낙관성과 강인성이 낮을수록 진로장애를 높게 지각하며, 이는 다시 진로태도성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상희, 2006; 이상희 2007; Lucas & Wanberg, 1995; Luzzo, 1996). 대학생들의 경력 미결정은 부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탁진국, 1996),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구직 스트레스가 더 크고 정신건강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장재윤, 신현균, 남순현, 김은정, 신희천, 김범성, 노연희, 안상일, 2003).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이현진, 2009). 하지만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 변인인 목적성과 독립성은 중간 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감이 부족하고 스스로의 결정보다는 주위의 평가에 의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목표한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교재나 도구를 구입하는 등의 실질적인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이현진, 2009)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인차와 노력, 동기 부여의 정도 등,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경제적 수준 차이가 있더라도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으면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낮으면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취업준비생들의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높다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것이며, 선택한 진로를 일관되게 추구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러한 진로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경제적 스트레스와 취업난이 심각하

더라도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것이며, 심리적 불편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난이 취업준비생들의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년실업은 일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갖게 하거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적응 수준을 떨어뜨리고, 우울과 불안 수준을 높이는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유은정, 2004; 이훈구 외, 2000; 장재윤 외, 2004b; Axelsson et al., 2002; Hammarstrom et al., 1997; Hammarstrom et al., 2002; Jackson et al., 1983; London, 1997; Winefield et al., 1991)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학교를 벗어나 사회경제적 성인으로 인정받는 취업에 실패하거나 일자리가 없어 구직기간이 장기화된다는 것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높이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울은 정신건강을 기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심리적 부적응 증상으로, 우울에는 과거 경험한 사건에 대한 후회나 자책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윤소미, 2002). 우울의 원인 중 하나인 무망감(hopelessness)은 바람직한 성과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기대(Abramson, Metalsky & Alloy, 1989)를 뜻하며,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로부터 비롯된다.

무망감은 우울증의 하위 유형인 무망감 우울증의 증상을 설명하고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다(윤소미, 2002; 윤소미, 이영호, 2004; 이영호, 1993; Abamson et al., 1989). Seligman(1975)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무기력(helplessness)으로 보고, 무기력을 성과의 유인이나 발생 가능성과 관계없이 성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기대로 정의하였으나, Abamson 등(1989)은 무기력만으로는 우울증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자 우울증을 직접 일으키는 충분원인으로 무망감 이론을 제시하였다. Abamson 등(1989)은 무망감이란 바람직한 성과가 일어날 것 같지 않거나 혐오적인 성과가 일어날 것 같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반응도 이러한 가능성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무망감 이론은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우울과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설명하

는데 적절해 보인다.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취업 준비와 시도, 실패의 경험, 그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사건일 것이다. 반복되는 구직 실패와 늘어나는 구직 기간, 그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 줄어드는 양질의 일자리와 늘어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기대감을 높이고, 이것이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면,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도, 무망감, 정신건강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 지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동안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덜한 청년층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중·장년층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스트레스는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인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구직기간은 늘어나면서 쉽게 줄어들 것 같지 않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취업준비생들의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적인 또 하나의 독립변인으로서 진로태도성숙도를 설정하였다. 진로태도성숙도는 그동안 종속변인으로 많이 연구되었지만, 직업을 선택해야 할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구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준비생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둘째, 취업준비생들이 성숙된 진로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셋째, 취업준비생들의 진로태도성숙 수준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완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가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진 취업준비생들에게는 크게 나타나겠지만, 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진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거나, 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충청, 전남, 부산 지역의 대학 4학년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7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공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취업난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치·약·한의·예체능 전공자들은 설문조사 과정에서 1차로 제외하였다. 또한 군입대 예정자, 대학원 진학예정자, 고시 준비생 등 취업 의사가 없거나 이미 취업이 확정된 경우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각 대학의 4학년 전공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E-mail과 편지로 연구의 취지를 먼저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허락받은 뒤, 강의 시간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모이는 취업설명회에서도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허락받은 뒤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취업준비학원이나 교회, 도서관 등에서 만나 주로 일대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9년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30분이었다. 회수된 설문지 511부 중, 대학 4학년 이하와 특수 전공자, 응답에 누락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82부를 제외하고 429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 자료에 포함된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205명(47.8%), 여자 224명(52.2%), 연령은 22세부터 30세까지로 전체 평균 연령은 25.3세였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 332명(77.4%), 경기 19명(4.4%), 충청 48명(11.2%), 전남 13명(3.0%), 부산 17명(4.0%)이었다. 계열별 분포를 보면 인문·사회 계열이 161명(37.5%), 자연 계열이 96명(22.4%), 경상 계열이 110명(25.6%), 법학 계열이 20명(4.7%), 사범 계열이 42명(9.8%)이었다. 429명 중 대학 4학년이 388명(90.4%)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졸업 이후 취업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41명(9.6%)이었다.

측정도구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

Lemper 등(1989)이 생활고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평가하도록 개발한 경제적 어려움 척도(Economic Hardship Questionnaire: EHQ)를 기초로, 허승연(1998), 백현정(1999), 이동걸(2007)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부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원 척도에 있는 문항 중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의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예: 자선기금에의 헌금 정도)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문항(예: 학자금 대출 경험)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하위요인이 없는 단일 척도이다. 학비 부담, 학자금 대출 경험, 용돈, 사교육비, 생활필수품 구입이나 여가와 문화, 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른 생활 비용의 변화 등 경제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불편감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로 측정되며,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5였다.

진로태도성숙 검사

이기학, 한종철(1997)이 개발한 측정 도구로 진로태도 성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되었다.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다. 진로태도성숙 검사는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안정감과 일관성의 태도를 측정하는 결정성,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목적성,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확신성,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의 정도,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정도를 나타내는 준비성,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독립성 등 5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

수는 결정성 .91, 목적성 .80, 확신성 .87, 준비성 .84, 독립성 .83였다.

Beck의 무망감 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BHS)

Beck 등(1974)이 개발한 척도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기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의 하위요인이 없는 단일 척도이다. 자신이 느끼는 바를 예와 아니오 중 한 가지에 표기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계산한다.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무망감이 심각함을 나타내며, 0~3점은 정상 범위, 4~8점은 경도의 무망감, 9~14점은 중등도 무망감, 15점 이상은 중도의 무망감 상태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5였다.

한국판 일반정신건강 척도(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GHQ)

Goldberg(1972)가 개발한 정신건강 척도로 상담심리사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같은 비정신의료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신선인(2001)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KGHQ 30문항형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4:매우 아니다)로 측정되며, 총점의 범위는 0~30점이다. 4가지 응답 항목에 대한 배점은 0-0-1-1이며,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정신질환 발병의 위험집단을 선별하기 위한 KGHQ 30문항형의 기준점은 16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며, 하위 요인인 우울 요인의 신뢰도는 .76, 불안 요인 .74, 사회적 부적응 요인은 .71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과 관련해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도가 무망감, 정신건강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 및 진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90% 이상이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해 취업 스트레스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취업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응답 분포는 표 3과 같다.

이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삼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도가 종속변인인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양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무망감, 정신건강 간의 관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스트레스는 무망감($r=.24, p<.001$), 심리적 부적응 전체($r=.35, p<.001$),

표 3. 취업 및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와 응답 비율(단위 : 명)

스트레스 수준	매우 심하다	심하다	보통 이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응답 비율	56 (13.1%)	164 (38.2%)	178 (41.5%)	29 (6.8%)	2 (0.5%)

표 4.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도, 무망감,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 분석

	무망감	심리적 부적응			
		우울	불안	사회적 부적응	전체
경제적 스트레스	.24***	.30***	.30***	.27***	.35***
진로태도 성숙	-.60***	-.36***	-.33**	-.52**	-.50***

*** $p<.001$

심리적 부적응의 하위 요인인 우울($r=.30, p<.001$), 불안($r=.30, p<.001$), 사회적 부적응($r=.27, p<.001$)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무망감을 많이 느끼고,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를 좀더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취업준비생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을 상·중·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각각 33.3%) 분석하였다.⁵⁾

그 결과, 경제적 스트레스 상집단의 무망감 수준이(평균 4.20) 중집단(평균 3.04)이나 하집단(평균 2.29)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F(2, 426)=8.66, p<.001$.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 수준(경제적 스트레스 상집단=12.96, 중집단=9.60, 하집단=7.42)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2, 426)=23.09, p<.001$. 이는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유의할 점은 경제적 스트레스 상집단은 정상 범위(0~3점)를 벗어난 정도(4~8점)의 무망감 수준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 상집단은 정신질환 발병의 위험집단을 선별하기 위한 KGHQ 30 문항형의 기준점(16점)에 근접하는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무망감은 심리적 부적응 전체($r=.61, p<.001$), 심리적 부적응의 하위 요인인 우울($r=.46, p<.001$), 불안($r=.48, p<.001$), 사회적 부적응($r=.56, p<.001$)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무망감이 심리적 부적응의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경제적 스트레스와 무망감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 무망감,

5) 일반적으로 가정 경제 수준은 소득을 기준으로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연구에서도 취업준비생들이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통상의 관례에 따라 상·중·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t=15.94, p<.001$, 과 경제적 스트레스, $t=5.62, p<.001$, 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언변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1단계에서 정신건강의 예언변인으로 무망감($\beta=.61, p<.001$)이 37%의 설명력을 보였고, 2단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beta=.21, p<.001$)가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이 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망감이 경제적 스트레스보다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무망감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로태도성숙도와 무망감, 정신건강 간의 관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태도성숙은 무망감($r=-.60, p<.001$), 심리적 부적응 전체($r=-.50, p<.001$), 심리적 부적응의 하위 요인인 우울($r=-.36, p<.001$), 불안($r=-.33, p<.001$), 사회적 부적응($r=-.52, p<.001$)과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취업준비생 중에서도 진로태도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낮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가설 2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진로태도성숙 수준에 따른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상·하위 50%를 기준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⁶⁾

그 결과, 진로태도 성숙집단의 무망감 수준(평균 1.48)이 미성숙 집단의 무망감 수준(평균 4.97)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t=11.58, p<.001$. 또한 진로태도 성숙집단의 심리적 부적응 수준(평균 7.32)이 미성숙집단의 심리적 부적응 수준(평균 13.03)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t=9.37, p<.001$.

즉, 진로태도 성숙집단의 무망감 수준은 정상 범위(0~3점)에 속하고, 심리적 부적응 수준도 KGHQ 30문항형의 기준점인 16점에 훨씬 못 미치지만, 진로태도 미성숙집단은 무망감 수준이 경도 수준(4~8점)에 이르고, 심리적 부적응 수준도 KGHQ 30문항형의 기준점(16점)

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무망감, $t=-8.76, p<.001$, 과 심리적 부적응, $t=-14.32, p<.001$,에 모두 유의미한 예언변인이며, 각각의 설명력은 39%와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과 그들의 진로태도성숙 수준 사이에는 약하지만 유의미한 역상관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r=-.13, p<.01$.⁷⁾ 이는 앞서서도 밝혀졌듯이, 두 변인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종속변인(무망감, 심리적 부적응 수준)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변인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진로태도성숙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도라는 두 가지 독립변인을 함께 넣고 분석해보기로 하였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상·중·하)과 진로태도성숙 수준(성숙·미성숙)에 따른 3×2의 이원변량을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을 종속변인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도의 상호작용이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도라는 두 가지 독립변인이 합쳐졌을 때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적 스트레스는 상·하위 33%를 기준으로 상·중·하 세 집단과 나누고, 진로태도성숙은 성숙·미성숙 두 집단으로 나누어 3×2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무망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F(2, 422)=10.51, p<.001$, 그리고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낮을수록, $F(1, 422)=133.20, p<.001$, 무망감 수준이 높았으며,

6) 일반적으로 진로태도성숙도는 성숙미성숙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통례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상·하위 50%를 기준으로 하여 진로태도 성숙집단과 미성숙집단으로 구분하였다.

7) 이 두변인 사이에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아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례수($n=429$)가 많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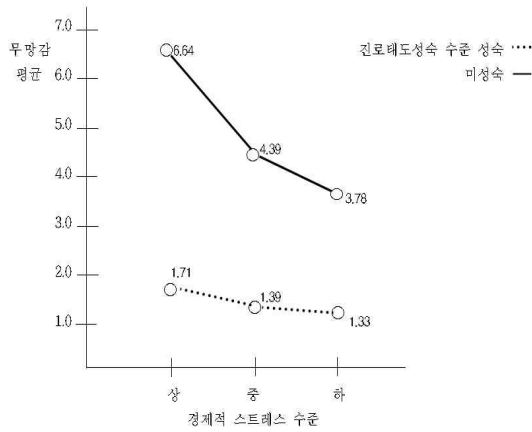


그림 1.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 수준에 따른 무망감의 차이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 두 변인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422)=6.06, p<.01$.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과 진로태도성숙 수준에 따른 무망감의 평균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은데, 이를 통해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무망감 수준의 차이는 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보다 미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숙한 진로태도를 보유한 집단에서는 무망감 평균의 차이가 없지만, $F(2, 218)=.75, p>.05$, 미성숙한 진로태도를 보유한 집단에서는 무망감 평균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2, 204)=9.55, p<.001$.

또한 심리적 부적응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F(2, 422)=26.52, p<.001$, 그리고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낮을수록, $F(1, 422)=87.38, p<.001$,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 두 변인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422)=4.16, p<.05$.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과 진로태도성숙 수준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의 평균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은데, 이를 통해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의 차이는 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보다 미성숙한 진로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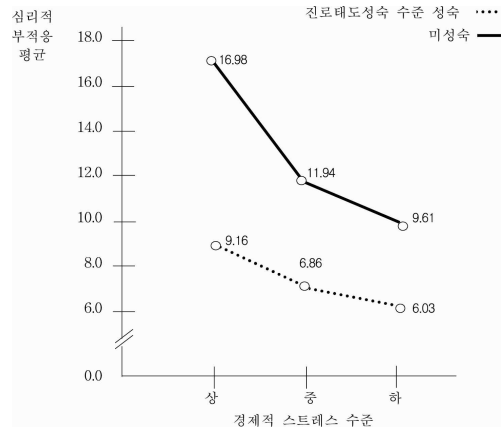


그림 2.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로태도가 성숙한 집단에서는 심리적 부적응 평균의 차이가 미미하지만, $F(2, 218)=3.41, p<.05$, 진로태도가 미성숙한 집단에서는 심리적 부적응 평균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2, 204)=13.11, p<.001$.

이러한 결과는 취업준비생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함께 높아지는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그들의 진로태도성숙도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가설 3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즉, 성숙된 진로태도를 가지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도 무망감을 느끼지 않거나,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낮지만, 미성숙된 진로태도를 가지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은 경도(4~8점)의 무망감을 경험하거나,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KGHQ 30문항형의 위험 수준 기준점(16점)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낮으면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집단의 취업준비생들은 상당한 수준의 무망감(평균 6.64)을 경험하며, 위험 기준(16점)을 상회하는 심리적 부적응 수준(평균 16.98)을 보이고 있어,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논 의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취업준비생들의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심리적 부적응을 예언하는데 있어서는 무망감이 경제적 스트레스보다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높은 학비 부담과 반복적 구직실패, 구직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낮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제적 독립이 너무나 힘든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학비 부담을 줄이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많은 연구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을 지적하고 있지만(박성준, 2005; 유은정, 2004; 이승호, 2007; 이효선, 2003; 이훈구 외, 2000; 정재하, 2004; 채구묵, 2004), 이에 대한 대책은 임금유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을 탄 사회경제적 변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흐름에 따라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이승호, 2007). 기업들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해 기존의 대규모 채용 방식을 접고, 상시 채용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장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업이 원하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취업 기회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을 두고, 청년층의 5% 정도만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얻고 나머지는 월 평균 88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우석훈, 박권일, 2007). 하지만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인턴이나 비정규직의 숫자만 늘리는

단기적인 대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비정규직과 실업을 오가는 반복실업자군을 형성하거나(이승호, 2007),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기간의 장기화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유은정, 2004). 본 연구 결과는 그러한 단기적인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기의 저임금 일자리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잠시 낮출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인턴 혹은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사이를 오가는 반복실업자군을 형성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취업준비생의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은 낮아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높이는 체계적인 진로 교육과 진로 상담이 경제적 스트레스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진로 선택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교육의 본질이 취업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전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진로 발달단계에 비추어보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시기에 이미 자신의 흥미와 능력,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 그에 맞는 대학과 전공을 결정하고 대학 재학 중에 이를 구체화시켜 직업에 입문해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쫓겨 자신에게 맞는 진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대학을 결정하고 뒤이어 취업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대학 이전의 교육 과정에서부터 진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입시에 밀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학에서라도 체계적인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 지도가 몇 차례의 강의나 적성 검사를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진로발달이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며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치는 과정(Super, 1963)이라는 인식

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높이는 체계적인 진로 지도는 단순한 직업 교육이 아니라 중·장년층으로 성장할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이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살펴 본 결과, 경제적 스트레스 수집단과 진로태도 미성숙집단의 조합이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집단과의 차이도 가장 컸다. 이것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도를 각각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두 가지 변인이 합쳐졌을 때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은 진로태도 미성숙집단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진로태도 성숙집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즉, 진로태도 성숙집단의 경우에는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와 관계없이 무망감과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높이는 체계적인 진로 교육과 진로 상담이 경제적 스트레스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따라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진로 지도와 청년실업 대책에 있어서도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도라는 두 가지 변인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청년들의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진로 상담이 함께 병행될 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경제상황이 급격히 변해 고용 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경제가 이미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청년실업 대책은 여전히 고용의 질과 무관한,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청년들이 삶의 발달 과제를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중·장년층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우리는 일자리 늘리기라는 외형적인 성과에 치중해 취업준비생들의 정신건강은 소홀히 해왔다.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등의 경제적 스트

레스를 낮추는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나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가장 잘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을 졸업한 기존 청년실업자는 연구 대상에 많이 포함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졸업예정자인 대학 4학년과 기존 청년실업자 간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중요한 변인일 것으로 예상되는 미취업 기간에 따른 무망감과 정신건강의 차이를 밝히지 못했다. 또한 청년실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미취업자와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불완전한 취업자, 정규직으로 일하는 취업자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을 세분화한 집단별 비교 연구 내지는 미취업 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는 본래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고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평가하도록 제작된 것을 취업준비생에게 맞게 부분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년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서울과 지방대학 간의 격차, 대학 간의 서열이 현실에서는 엄연히 존재하고 이것이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근거나 척도가 없어 연구에 반영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청년실업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부분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이번 연구에서는 대학 4학년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15~29세의 청년들 중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학을 다니지 않은 청년들이 많다.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겪는 취업 스트레스가 본 연구의 대상들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가

드물고, 본 연구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청년실업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상이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것은 고졸자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을 하는 반면, 교육투자 대비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가장 많이 부각되는 대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실업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5~29세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경모(2002). 청년층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보형(1998). 경제불황 상황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영태(2005).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논문집, 34, 81-104.
- 노연희, 장재윤(2006). 대졸취업자의 지각된 과잉자격이 자존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9(1), 59-83
- 박성준(2005).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백현정(1999) 아동이 지각한 경제적 어려움, 부부갈등, 양육태도 및 애착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송혜령(2004). 반복적 구직실패가 입지기대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신선인(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9), 210-235.
- 신현균, 장재윤(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15-827.
- 신희천, 장재윤, 이지영(2008). 대학졸업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사회연구, 16(2), 43-75
- 오경자(1998). 경제불황의 심리적 영향: 실직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 오수성(2001). 국제금융위기 후 실직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스트레스 대처 양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481-496.
- 우석훈, 박권일(2007). 88만원 세대-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서울: 레디앙.
- 유은정(2004). 청년실업 장기화에 따른 고학력자의 진로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유희정, 황성훈, 홍진표, 김현수, 이철, 한오수(2000). IMF에 관련된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39(1), 65-77.
- 윤소미(2002). 청소년의 스트레스, 귀인양식, 사건귀인이 무망감과 무망감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윤소미, 이영호(2004). 한국판 무망감 우울증상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1051-1063.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기학, 한종철(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 이동걸(2007). 뇌졸중 환자가 겪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관련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 이민규, 김완석(1999). 실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94-109.
- 이상희(2006). 대학생의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99-417.
- 이상희(2007). 진로장애와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s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75-392.

- 이승호(2007). 청년실업 해결을 향한 16가지 정책 제언. 도시와 빈곤, 86, 77-105.
- 이영호(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지영, 장재윤, 신희천(2008). 대졸 미취업자들의 정신건강 변화에서의 진로 정체감 효과: 비선형 다층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1(4), 575-605.
- 이현진(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효선(2003). 청년실업의 사회학적 의미와 정책 대응. 사회과학연구, 16, 1-21.
- 이훈구, 김인경, 박윤창(2000). 경제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87-101.
- 임진(2003). 애착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장재윤, 신현균, 김은정, 신희천, 하재룡, 장해미(2004a). 대학 4학년생의 구직행태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45-165.
- 장재윤, 신현균, 남순현, 김은정, 신희천, 김범성, 노연희, 안상일(2003). 대학 4학년생들의 직업 미결정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발표논문집.
- 장재윤,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한지현(2004b).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21-144.
- 장재윤, 장은영, 신희천(2006). 대졸자들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65-87.
- 정기선(2000). 경제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여름호), 389-416.
- 정재하(2004).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 입법정보 제 125호.
- 조미영(1999). 가정의 경제적 불안, 부모의 우울, 아동의 사회적지지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채구목(2004).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 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6(3), 159-181.
- 최옥현(2006).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탁진국(1996). 경력미결정과 부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9(2), 81-94.
- 허승연(1998). 경제위기로 인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와 가족응집성 변화가 아동의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Ab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 358-372.
- Axelsson L. & Ejlertsson G. (2002). Self-reported healt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mong young unemployed people: a population-based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1, 111-119.
- Baum R., Fleming R. & Reddy D. (1986). Unemployment stress: Loss of control, reactance and learned helplessnes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2, 509-516.
-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61-865.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Fryer D. M. (1986). Employment deprivation and personal agency during unemploy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1, 3-23.
- Hammarstrom A. & Janlert U. (1997). Nervo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unemployment-selection or exposure? *Journal of Adolescence*, 20, 293-305.
- Hammarstrom A., Janlert U. & Winefield, A. H.

- (2002). Unemployment and health behaviour after leaving school: the influence of unemployment level. *International Congress Series 1241*, 173-181.
- Jackson P. R., Stafford E. M., Banks M. H. & Warr P. B. (1983).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people: the moderating role of employment commit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3), 525-535.
- Kong F., Perrucci C. C. & Perrucci R. (1993). The impact of unemployment and economic stress on social support.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9(3), 205-21.
- Lemper J. D., Clark-Lemper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1), 25-39.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 Lucas J. L., & Wanberg C. R. (1995). Personality correlates of Jones' three dimensional model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315-329.
- Lo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 239-248.
- Seligman M. E. (1975). Helplessness. 무기력의 심리. (윤진, 조금호 공역). 서울: 탐구당(1983).
- Super D. E. (1963).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essays in vocational develop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Warr P. B. (1983). Work, jobs, and unemployment.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36, 305-311.
- Winefield, A. H., Winefield, H. R., Tiggemann, M. & Goldney, R. D. (199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psychological effects unemployment and unsatisfactory employment on young adul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3), 424-431.
- Winefield, A. H. (1997).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Journal of Adolescence*, 20, 237-241.
-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1996). Hard time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71(1), 166-179.

The Influence of Unemployment-related Economic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n Hopelessness and Mental Health in Korean Youth

Min-Jung Kim Geung-Ho Cho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economic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which are related to the youth unemployment on the hopelessness and mental health.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help someone who are struggling with the youth unemployment by giving them a help about their career guidance. A survey was conducted on 429 persons of the senior and graduate students who are preparing for the work. Over 90% of participants' data felt stressful because of employment and care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economic stress caused an increase in the hopelessnes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econd, the higher level in career attitude maturity decreased the level of the hopelessnes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ird,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economic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n the hopelessnes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was studied. The group with higher economic stress and lower career attitude maturity showed the highest level of hopelessnes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Besides, this group showed the most difference all of the group.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ose from each factor of economic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mplying that the synergic effect of economic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s statistically meaningful. However, this synergic effect of economic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which affects hopelessness and mental health showed only in the group with lower career attitude maturity, not in the group with higher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we need not only long-term and integrated policy about the youth unemployment but also more active career guidance and education instead of increasing short-term employment such as intern and part-time jobs.

Keywords : young applicant, youth unemployment, economic stress, career attitude maturity, hopelessness, mental health, psychological maladjustment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10월 1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11월 21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11월 24일